

『율리시스』 독회: 「에우마이오스」

손 승 희

〈일러두기〉

- 기록 내용은 다음 세 가지, 즉 독회에서 개진된 견해를 정리자가 기록한 부분 (발의자 이름 표시), 독회에 참석한 회원이 독회 후에 침삭 정리해서 보내온 메모 (발의자 이름 뒤에 *표시), 불참한 학회 회원이 개별적으로 보내온 의견 (발의자 이름 표시)으로 구성된다.
- 1차 정리한 독회기록문은 참석자에게 초고 형식으로 회람되어, 침삭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거쳐 완성된 독회기록문을 학회홈페이지 및 회원에게 최종 본으로 송부한다.
- *Ulysses*는 Gabler 판본에 의거하여 장과 행을 표시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를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 U라고 표시한다.
- 독회에서 거론이 되었더라도 Gifford의 주석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록할 경우 (G)로 표시한다.
- 발제자의 모두(冒頭) 발제는 <발제>, 참가자 간의 의견 교환은 <토론>으로 표시한다. 사후 접수된 의견 가운데 제목이 붙어있고 비중이 있으며 논점이 명확한 해제의 글은 <토막춘평>으로 분류한다.

■ 아래의 기록 정리는 앞으로 계속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으며, 그 최종본을 학회지에 일괄 전재한다.

제53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 502호

일시: 2008. 1. 19. (토) 오후 2:15-5:45

독회진행자: 김석

정리자: 손승희

범위: *Ulysses*, Chapter 14 (Eumaeus), Lines 1~140

참석자: 홍덕신, 김석, 전은경, 김길중, 김종건, 이태수, 남기현, 최석무, 송인영, 이 인기, 이종일, 정인경, 강서정, 손승희

〈발제〉

형식과 내용에 있어, 특히 장을 구성하는 구조와 언어적 측면에서 『율리시스』의 가장 난해한 장중 하나임이 분명한 제14장 ‘Oxen of the Sun’은, 작품 전체의 플롯을 조망했을 때에도 핵심적인 부분임에 (즉, 독자가 고대해온 두 주인공 블룸과 스티븐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장의 이러한 핵심적 위치는 텍스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원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일찍이 『『율리시스』, 질서 그리고 신화』에서 T.S. 엘리엇은 조이스의 모더니즘 작품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와의 “지속적인 평행성의 조작”(manipulating a continuous parallel)을 통해 그 구성적 원리를 획득한다고 역설하였지만, ‘Oxen of the Sun’이 역으로 그러한 “평행성”의 해체를 통해 부각시키는 것은 질서 회복이란 엘리엇식의 주장 자체가 지니는 허구성 내지 그 이데올로기적 면모가 아닐까? 다시 말해 13장까지 계속해 텍스트의 아래, 뒤, 혹은 너머 어딘가에 향시 배회

(haunting)하는 것처럼 보였던 『오딧세이』라는 고전은, 본 장에서는 후자 없이는 전자의 독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두 작품, 나아가 두 시대 간의 필연적 상호침투성, 기생적 의존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질서를 둘러싼 이러한 문제의식, 혹은 그 불가능성의 생점화와 결코 뗄 수 없는 두 번째 물음은 언어와 관련된 것이다. 현 장을 다른 모든 장으로부터 구별 짓는 요소가 영어어의 수사적 발전과정을 되짚어 패러디하고 있는 형식적 측면이라면, 왜 장의 도입부와 종결부는 고대 라틴어와 현대 미국영어에 대한 풍자에 그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결코 ‘처음이란 것도 마지막이란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17장의 명제(XVII, 2130)를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역사적 관점에 입각해 시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장 전체 조망〉

- * U 14장은 구조와 언어 사용면에서 난해한 장. 시대별 영어변천사, OED 두고 쓴 이 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밤 10시 시작. National Maternity Hospital (at Holles Street) → 첫출. Bloom과 Stephen의 재회 (아들 Rudy를 잃은 Bloom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Stephen과 만남 - 부자 상면 *Odysssey*의 motif와 연결됨.
- * *Odysssey*의 배경-태양신 헬리오스Helios, 트리나크리아Trinacria 섬에서 관리하는 350 마리 소와 양 (도살하면 안 된다는 현자 테레지아스 경고 무시한 무리 중 오디세우스 혼자 가까스로 살아남음)
- * 구조면에서 본 *Odysssey*와 *Ulysses*의 조음관계-Oxen은 병원의 산모들, 환자들, 소는 다산(풍요)의 상징. 루카치 원용: 총체성을 지닌 고대 희랍 시대와 식민 경제 상황에 처한 당대의 아일랜드, 언어 자체를 시대의 알레고리로 읽어본다면 조이스 당대에 이르는 변천사와 동케임.
- * 블룸은 출산 고통 겪는 Mrs. Purefoy 만나러 온 길 Stephen 의대생 친구들과 술잔치 벌임. 잘 되기 바란다는 뜻을 게일어 앵글로색슨어 (영어) 라틴어로 표기함. Horhorn 병원장 이름을 끌어다 씀. Hoopsa boyaboy 남자애가 태어남 미국 (새로운 제국) 탄생 암시. 영국 침범했던 로마의 살리투스사 타키투스 문체 흉내. 출산이 인간 본연의 의무임을 알고 있을 것.

〈토론〉

* 1행-70행: 1행 Deshil Holles Eamus. 잘 되기 바란다는 뜻으로 게일어, 앵글로색슨어 (영어), 라틴어로 표기함. Horhorn 병원장 이름 인유. Hoopsa boyaboy 남자 애가 태어남-미국(새로운 제국) 탄생 암시 17행~21행 For who~ 이런 사람이라면 출산이 인간 본연의 의무임을 알고 있을 것(영국 침범했던 로마의 문인) 살리투스과 타키투스 문체 흉내. 13행 nation과 17행 nature 국가적 민족적 출산 장려 (구성원 숫적 증가의 가치) 민족의 탄생과 관계? 33행 우리 켈트족은 출산 장려에 부응 산과병원 건립. 라틴어원 가진 낱말 여러 번 반복 두운 Anglo-Saxon. 자기정체성 확립 위해 외적인 것 몰아냄. 내용상 병원 내 모습. 언어발달사 // 태아의 성장 과정. 태아로 완성되는 모습 전개 과정에 이질적인 요소 Israel 민족 Bloom의 등장. 71행 여기서 이질적인 요소로서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는 불륨 언급.

[1행]

- <김길중, 김석> 이교도 사제 의식 집전 의식을 활용해서 조이스의 삼세창-주술의 시작부
- <전은경, 김길중> Holles 실제 거리명 홀레스, Deashil = De(a)s[nice]+sul[walk], Eamus [Let us go]

- <남기현> 314쪽 2문단은 두 문장으로 구성된 한 문단인데 실제 영어로 썼나?
- <이태수> 라틴어보다 영어 번역이 길어지게 마련임 (예: Kant 『순수이성비판』 등이 Latin syntax인데 라틴어 절대 탈격(ablatives, 과거분사 기능)을 활용하면 영어 여러 문장을 라틴어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음 여기 조이스가 쓴 것과는 같지는 않으나 훔볼트 헤르더 한 페이지에 3-4문장 장문; Oxonian 영어는 20C 청자에게 라틴어같이 들림 길고 현학적인 특성
- <김종건> Henry James 문장도 장문 경향 1문장이 1쪽에 달함. 현대 라틴어도 긴 문장이 많은지 여기 문단의 주어는?
- <김길중> ‘who’가 누구인지 알려고 기다리게 만들다가 지치게 하는 책략? who=that person 보편적으로 이러하다... 이런 감식력을 가진 사람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식

- concerning (관해서 한창~ 무엇이든지간에, 로 던지고 뒤따라~)

- <이태수> Homo Sapience (=mortals with sapience - 라틴어 전형적인 표현법) 사람 endowed with s(지혜); 살루투스와 타키투스의 예에서 살루투스는 그리 어렵지 않지만 역사가 타키투스는 라틴어 산문 중 가장 어려운 수준 (운문 중 Horatius격)

<김종건> 왜 길게 쓰는가에 관한 생각, 인간의식을 물 흐르듯 길게 읊겨 표현함 주어 동사 찾기 난해함. 숫자 3의 주술성 (인도의 예식, 엘리오프의 『황무지』), *Finnegans Wake*의 전조 게일어+영어+라틴어 병치는 Horn은 나팔, 남성성기, Holles 원장이름 등 3회 반복의 의미 복합어 생성 wombfruit, boyaboy, quickening 명사로 첫 번째로 감지한 태동을 뜻함
마지막 부분 American slang 현대/미래언어에의 발달 아니면 다 무너진 형태?
→ 잘 되어달라는 기원. 이 장의 프롤로그와 Sirens 장은 “Done”으로 끝남; 에필로그: Emnette 광고//Marian Hall 미국 전도사 광고 보고 11장//14장

<김길중> 12행 others circumstances being equal 진지한 생각 상투어 끌어들이어 표현한 효과-병원장 실제이름 Mr. Horn 점잖지 않은 말 더듬은 인상. (cf: 말 만드는 재미, wombfruit처럼 사람에게 식물용 언어 사용)
-<남기현, 김길중> 말더듬기 효과 Horhorn 등 Lewis Carroll식 단어라든지 *Finnegans Wake* 떠올림.

<김종건> bright one, light one에 주목

- 빛나는 자 곧 태양을 의미, light는 ‘가벼운’ 뜻 아님. 호격으로 머리 좋은 놈 보내달라는 의미
- <김길중> 영국 휴양지 Brighton에 bright 뜻 있음. Battle을 지명으로? 문법이 깨어지면서 유지되는 상황에서 우스운 효과 자아냄.
- <남기현> Horne이 실제로는 병원장 이름이 아니라 산부인과 과장 이름이라 함.
- <남기현, 정인경> ‘quick’의 다른 용례-성경에서 생육, 살아있는 사람 의미
- <손승희> quicksilver(움직이는 은=수은)이름의 유래와도 상통

-<김길중> (~이시여) Send us ... quickening and womfruit(플) 60행 두운을 흉내 활용 /b/ /w/ 등

<최석무> 출산 국가형성에 중요하다고 축복하는데... problematic. 작품 앞 장의 내용과 다른 듯함. 예컨대 8장에서 블룸이 스티븐 형제 많은 점 비판 그런데 20c 초 아일랜드 출산 억제 경향. 결혼 어려운 현실에서 결혼 전 여성이 대기근으로 많이 사망, 그런데 대기근의 원인은 (당시 가톨릭의 여성 피임 금지 영향을 받은) 인구폭발 과도 맞물려 있음.

-<김길중> 성경 생육하고 번성하라 부귀다남을 기원하는 태고이래의 의식을 인식.

-<송인영> 당시 유럽에 비해 인구가 적은 아일랜드의 출산율 증가, 1907년 이후 감소, 유럽에서 인구 감소 유일한 국가가 아일랜드였음.

-<최석무> 아이 많은 것에 대한 조이스 생각이 아홉 번째 출산을 겪는 Purefoy에 드러남.

-<송인영> 개인차원 출산 (종교적 받침) / 국가적 인구 감소 (경쟁력 저하) 즉 개별 가정의 가장 노릇과 국가 차원에서 경제 상황의 구별 필요할 듯.

-<최석무> 인구 문제보다 아일랜드에 남은 사람들의 능력이 별로라는 점에서 아일랜드 침체 원인을 찾은 듯.

-<남기현> 인구증가와 출산증가는 다른 문제. 대기근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더불어 흥작인데도 영국이 지원 안 해서 사람들 떠났고 이민자들 대부분이 노동력 보유한 남성인력. 출산은 종교적으로 피임이 금지된 사회에서 중시된 측면 있음. 당시사회 결혼하고 싶은데 못하는 여성들 (unmarried women) 많았음.

-<최석무> 출산 문제는 Bloom 자신에게도 해당됨. 3을 3회 반복한 숫자 9의 의미, 아홉째가 태어나도 된다는 뜻인지.

-<김길중> 사회 전반적 급감에 따른 우려가 반영된 듯. 아이 낳는 문제는 세대 연결 문제, 은유적으로 세대의 순환을 의미.

<김석> 당시 산부인과 병원 원장은 두 명인데 작품에서는 Home에만 주목.

-<최석무> 시대의 불모성 modernism의 motif를 조이스가 채택한 것?

-<김중건> 내용 논의와 별도로 작품(text) 자체 읽기가 중요할 듯.

- <전은경> 문법적인 것 무시해서 썼다면 문법적 추적에 한계가 있을 듯.

<김길중> 19행 *lutulent reality*의 뜻은?

- <이태수> *lutulent*는 라틴어같이 생겼으나 이상한 단어

- <김길중> 빛나고 좋은 현실이라 착각하게 하는 의도인지도

- <이태수, 김길중> 10행 라틴어순의 예

[문단 구조 논의]

<남기헌> *maintain*의 주어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모르는~’ 핵
심어는 13행의 *the prosperity of a nation*

- <홍덕선> *when* 다음 주어 *they affirm that ~* 주어 *the original (of evils)*
constitutes

- <김길중> *sustaining - which of evils than the tribute which* 주어

<남기헌> 15행 *which*의 격은? 주격으로 *which constitutes = 김종건* 번역판에도 그
렇게 *proliferent continuance*와 동격? *continuance*가 없으면 악이고 다행히 있으
면 (내용상은 반대 아닌가)

- <이태수> *evils* → *absent, partitive genitive*의 예로 보아 *of evils the original ->*
original evil 중에서 그것이 없다면 *if it ~* 즉 원죄가 다행히 있으면 나라 융성

- <김길중> *it = original of evils evils the original (if it be absent) corrupted/*
in-corrupted benefaction (죄 부분만 없으면 축복)

<이태수> 죄는 없다치고

<손승희> *absent* 아닐지 몰라도

<김종건> 없으면(*if*) 문제로되 있어서(*when*) 다행

<김석> *it = proliferent continuance, 즉*

which (if it be absent) constitutes the original of evils,

(but when it is present) constitutes the benefaction

- <이태수> 라틴식 용법과 부합되는 해석. 동사 하나가 둘 받음으로써 한 문장
내 반복 피하는 경향 있음.

- <손승희> 라틴어 문장 내 단어 배열과 문장 사이의 연결 순서상 핵심어가 중앙

에 올 수 있는지 ?

- <이태수> 그렇게 만들 수 있음. 라틴어 어순은 대개 주어 목적어 동사 순의 배열, 여기에서 벗어나면 앞에 놓이는 것이 강조됨. 여기에서는 문장 끝과 다음 문장 시작을 연결한 책략이 발휘됨.
- <손승희> 그렇다면 핵심어인 the prosperity of a nation(13행)이 복선을 깔고 등장한 인상을 줌.

[33행~]

- <홍덕선> 중세풍 산문으로 가면서 읽기 쉬워짐.
- <이태수> 굴절어, 영어가 흉내, 어순 자유자재임. the original of evils
- <김길중> Israel과 Celt 민족의 태동 동일시, 성경과 민족 이야기 합침 314쪽
- <이태수> 주어 차이
- <김중건> 315쪽 59행 'She felt !'의 목적어는 O thing of prudent nation
- <김길중, 이태수> 태아가 몇 달 만에 나오는 지 등 parallel, 자궁-병원 난자-간호원 정자-블룸, 71행부터 시작되는 문단에 탐정소설 기법 사용.

71행 Bloom 언급, A. Horne is lord (영주, Helios 신) God's angel to Mary (수태고지)와도 wandering Jew와도 대비되는 이방인 Bloom. 두 명의 nurses 80행 문 열려서 Bloom 들어옴, 번개침, 앞 장에서 행한 자위에 대한 신의 노여움 Loth to irk ... outwandered (Jew, *Odyssey*) Callan (간호사) 만남→13장 960행 만나게 될까 예측했음. 대화 나눔 O'Hare Doctor 이야기. 3년 전 사망, 다음 문단-*Everyman* 연상됨. 107행 시작부분 *Everyman* 다음 문단의 the man - 다시 Bloom - 보편성 (cf. 71행 유대인 Bloom) - Bloom의 위치 변화, 다음 문단 Mandeville 인유 traveller 111행 Bloom이 병원 온 목적은 Purefoy 방문 간호사는 아이 없어서 Nine twelve 산고 양쪽으로 Bloom의 sympathy 향함. <손>Latin 동사 공유? (316쪽) Dixon - Bloom 치료 경험 있음. 용에 쏘인 것으로 bee-sting (317쪽) 표현 <손>fantasy처럼? knight→다음쪽 scholar (314쪽) Holles 자궁 의미 holes, horn Bloom도 cuckhold (앞 장 끝)

<김종건> 316쪽 In ward wary the watcher의 예, Lo, levin leaping lightens (동사),
한편 levin (81쪽) 번갯불 의미. wotting worthful은 rhetorical device 리듬 의식?
- <김길중, 손승희> Anglo-Saxon 두운을 살린 결과; 청각 중시한 Hopkins 시풍
연상됨

<김종건> 번쩍임 상정 thunder, Joyce와 Eliot는 literary milieu 공유 (문체 유사,
차이점은 Eliot의 세계관 황무지이나 Joyce는 긍정적이라는 것 (예: 비 안 오는
세계의 Da 소리로 끝남 - Eliot의 금욕성 / 번개가 비로 이어지고 출산 이름 -
Joyce의 희극성)

*The Wasteland*와 *Ulysses* 사이에 2/3 단어 유사함 (말이 좋아 parody이지
plagiarism 아닌가?) 모방 - 미성숙 시인과 성숙한 시인의 차이, 엘-라이-오트
- <남기헌> 다른 작품에서 많이 베껴온 *The Wasteland*를 두고 Joyce는 편집자 역
할을 한 정도, 1920년대 *New York Times* "Eliot의 표절성" 논문도 나왔음.
- <강서정> 시작과 끝이 만남. 수태고지(구세주 탄생)와 성배전설(켈트적 로맨스)
가 문화적 차이이며 연결, 두운, 로맨스 특성. 3행, 4행에 반복되는 Horhorn,
quickenning and wombfruit. 단어 생성의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나열하고 있
음. 1. Horhorn: 단어의 어기 일부나 전체를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단어를 생성
하는 중첩(reduplication)을 보여줌. 말레이어나 터키어, 마오리족의 언어 등에서
자주 나타남. 2. quickening: 굴절(inflexion)을 통해 새로운 단어 생성. 라틴어
등의 인도유럽어에서 대표적인 단어 생성 방법. 3. wombfruit: 복합(complex
compounding)을 통해 새로운 단어를 생성. 즉 이 세 단어는 주술적인 역할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단어 형성 자체로서 단어의 형태소가 서로 결합하여 새로
운 단어를 낳는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줌으로써 산부인과에서의 출산과 묘한 연
계를 갖는다. 또한 단어의 동양과 서양의 단어 생성 방법이 함께 가고 있어 출
산의 보편성과 통합성을 잘 함축하고 있다.

<김길중> 이교도적 상상력, 천둥치는 것 pre-Christian

- <정인경> 성경에 '천둥 치듯' 표현, 천둥-우레와 같은 하느님의 소리
- <남기헌> 신화에 등장하는 천둥신. 시간별로 바뀌는 문체. *Beowulf* 등 문체만
아니라 당시 이교도 사상적 배경 함께 복합적으로 언어-문체-출생 연결 ->마지

막에 세속화

- <김종건> 비 쏟아지는 장면 345쪽 웅장하고 아름답게 묘사된 장면
- <김길중> 316행 *ywimpled* - 고대 영어식 표기 (psychology 회랍어 *ge->y*)
- <홍덕선, 김종건> 85행 *will wotting*(안다) *worthful*(충분히) *went in*→그녀의 뜻을 충분히 알아차리고 ⇒ *The man who knew her will worth knowing* 정도의 의미.
- <손승희> /w/ 소리의 집합으로 입힘→syntax 흠어서 sound 모은 효과.

<김길중> 중세극 *Everyman* 인물 많이 등장, 신은 *vengeful god*

- <홍덕선> *every man*, 구약의 하느님 이미지와 통합.
- <이태수> (*that is born of*) woman
- <홍덕선, 김길중> O' (손자), Mac(아들)
- <전은경> 316쪽 1문단 성서 암시외에 잉태 과정이기도 천둥과 번개, 비 내림 (양수)

[93행~ 수태, 임신 1개월]

- <김길중> 노아의 홍수 시대
- 일설에 아이 2개월 영혼(뇌?) 생긴다는데 Stephen이 지어낸 말 (Gifford 주석, Catholic 잉태 당시 이미 영혼 있음)
- <김석> Aristotle에서 따온 생각에 따르면 영혼이 자란다?
- <남기현> *Aristotle's Masterpiece* 의 도면 사진 (예: 임신 몇 개월에 인체 기관 중 위 형성) 의학서적 아니지만 Joyce가 여기에 맞추어 언급했다고.
- <이태수> 생명 탄생에 관한 Aristotle 저술 있음 (정자에 이미 영혼 들어있다는 내용)
- <김석> 태아 안에서 감성 영혼 이성 영혼 분리 (Gifford 주석 구판 340쪽)
- <전은경> 이미 DNA 결정

<김종건> 140쪽 *venery* (Gerty와) 정사

- <전은경> 316쪽 3문단 - 착상 1개월째
- <김종건> 식탁 묘사 상술. Joyce의 음식 취향, 여성 속옷에 관한 애착(주머니에

일부 넣고 다녔다는 일화도 있음)

- <남기헌> *Ulysses* 3장에서 Stephen이 Paris 갔다 오면서 속옷 잡지 2권 들고 옴
- <김종건, 남기헌> fetishism – Martha 복장 진도 transvestism, Bloom 관음증
- <홍덕선> 성적 쾌감 혹은 작가적 상상력

[153행 Portugal land 수입 생선]

- <전은경> Joyce는 육류보다 생선을 선호 (*Finnegans Wake* 언급)
- <김종건> Bloom의 별명이 고등어임.

<전은경> 316쪽 The man ~ 14세기 Mandeville 작품 모방

- <남기헌> 내용 거짓말 *Othello* 의 예
- <김길중> 산해경(?)
- <김석> The man은 *Everyman*의 아이와 대비되는 서사시 주인공 Bloom

<홍덕선>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에도 Dixon 언급됨.

- <남기헌> 의사 Dixon과 간호사 Callan 사이의 affair 의심됨.
- <송인영> 옷 먼지를 떨어줄 정도의 사이임.

제54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 502호

일시: 2008. 2. 16.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김석

정리자: 손승희

범위: *Ulysses*, Chapter 14 (Eumaeus), Lines 141~263

참석자: 홍덕선, 이태수, 김석, 전은경, 김길중, 김종건, 이인기, 김철수, 송인영, 최희재, 이종일, 김상욱, 길혜령, 정인경, 최석무, 손승희

[* 1월분 기록에 덧붙여,]

- <이태수> 외형적 라틴어식이나 결국 영어로 독해 가능한 문장들임. 겉모양만 그런 투일 뿐 실제로 라틴어 문체 모방은 아닌 듯. Gifford 주석의 내용-Sallust와 Tacitus 모방(409쪽)을 믿기 어려움.
- <손승희> 14장 Tacitus 관련 부분 ~Schork, *Latin and Roman Culture in Joyce*. pp. 49-50, 53-6, 109, 110(during the turmoil in Rome following the assassination of Julius Caesar); *Letter I* 139 라틴어식 문체 그러나 실제로 많이 다름-FW 여러 부분과 U 12장 historical narrative 예 참조. 앞의 의견 및 다음 발제와 토론 내용을 함께 보면, 'When he uses Roman writings, James Joyce employs a parody implying a contrastive connection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라 하겠음.

〈발제〉

영어로 쓰였다는 사실을 새삼 의심케 만드는 장의 도입부와 달리 60행부터는 고대/중세영어 패러디가 시작되고, 141행 이하에도 계속해 패러디의 스타일이 유지되고 있다. 병원 내 사무실에서 몇 명의 의학과들과 친구들이 술잔치를 벌이는 광경은 중세 앵글로색슨 문학이나 스칸디나비아 사가에 자주 등장하는 미드홀 연회를 연상시키고, 149-151행에 등장하는 사뭇 우스꽝스러운 정어리 통조림 묘사는, 앞서 벌에 쏘인 것을 용과의 싸움과 등치시킨 129-130행의 비유가 그렇듯 옛 언어의 부활을 통해 현재를 낫설고 코믹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패러디의 전형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조이스의 글의 많은 경우가 그렇듯, 패러디의 효과가 단지 코믹한 분위기 창출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패러디가 장 전체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우리는 패러디라는 용어의 어원적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즉, para-oide에서 oide, '노래'는 사어가 된 단어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옛 언어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라져버린 옛 세계관에 새로운 삶을 부여하는 효과를 결과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는가? <우상의 황혼>에서 일찍이 니체는, 말을 죽은 감정의 대치물, 침전물이라 지적한바 있지만, 현 장은 죽은 낱말들에 새 삶을 부여함으로써 순간적으로나마 오늘날 물화의 마지막 단계라 불리는 스펙터클 사회에서 인류가 잃어버린 삶과 자연의 놀라움, 경의스러움

을 그 어떤 표현키 힘든 일말의 파토스와 함께 되살려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 장이 단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념에 치우쳐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한 예로 194행에 주위 인물 중 가장 취해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스티븐 데일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그가 그토록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되물게 만들고, 또 247행에 이어지는 그의 아베로에스 & 모세스 마이모니데스 관련 언급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로 대표되는 그리스/로마 편향적 사유에 매몰되어 있는 젊은 날의 스티븐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즉 현 장은 스티븐의 현실존적 상황에 대한 독자의 고찰을 부추기면서 동시에 그의 복잡한 상념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서구 중심적 세계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토론〉

* 317쪽 140-210행: Parody style 유지. 중세 Scandinavia saga에 자주 등장하는 연회 장면, 정어리 통조림과 벌 쏘인 장면. 149행 parody 효과 - comic 효과만 아니라 지속적 효과 - 제국의 언어를 비틀면서 작가로서 조이스는 즐긴다. 옛 언어에 새로운 삶 부여. 희랍어 어원의 para + oide 물화된 삶을 상기시킴. 중세 기사가 현대에 비치는 모습에서 pathos 자아냄. (목표어로서) 현대영어가 살아있는가 - Martin Amis, "The War against Cliché" 조이스의 *U* 에 대한 에세이로 여기서 cliché는 생각 없이 활용하고 있는 idea. 194행 도서관 장면 이래 처음 스티븐 등장하는데 취한 모습임 Is that ...? Blueribboned hat ...? Idly writing ...? What? ... Looked ...? (*U* 9.1123) 스티븐이 도서관에서 Emma Clery (E.C.)를 도서관에서 본 것이 술 마시게 된 이유라 보임. 술자리 배석한 Costello는 *Elizabeth Costello*에서 *U* 후속편을 쓴 소설가로 등장하는 인물 이름이기도 함. 인물/작가의 병치 상징. 171행~ 블룸의 직접 인용 I marvel, said he that. 177-8행 And the franklin that had drunken said 직접 따왔는데 우리들의 말 아니라 같이 휘었다.

- <김중건> 지금 문체 아니라 medievalism
- <전은경> 인물이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의 말
- <홍덕선> 18c 소설에도 따옴표 없는 인용 자주 나옴. he said 투는 18c 문체의 parody가 아닐까

<김석> Nabokov - 구조 살리는 쪽 - 철학보다는 실험 쪽 → Amis as stylist Beckett
- 생략 위주 minimalism → Amis는 여기에 반기를 들.

- <홍덕선, 김석> 문단 하나=소설 하나, 풀어놓으면서 뭉치는 Nabokov 식

- <전은경, 김길중> 탈모더니즘, 탈구조주의 연상됨. Post-modernistic, Post-structural

<전은경> 142행 four dwarfmen => 탁자다리 네 기둥조각 witchcraft 연상되는 장면

- <전은경, 손승희> Birchwood(자작나무)의 강도는 베니어합판으로 사용되는 정도임.

- <김길중> Finland(y)

<전은경> 남의 글 모방 가득한 조이스 작품의 패러디 기법 통해 현대에서 옛 것을 되살리면서 연상시킴, 곧 회상+연상 post-modernism적 발상?

- <김석> 하이데거에 따르면 고어로 갈수록 언어 본래적 측면과 닿아있다는데, 조이스에게 이런 nostalgia는 없는 듯함.

- <전은경> 여석기, 박시인 등에서 시작된 『젊은 예술가의 초상』 번역은 언어발달사 반영 예.

[시대와 문체의 연관성-번역의 예]

- <이태수> 중세어휘 한국말 번역

- <김종건> 동사 번역어 어미

- <전은경> lamp 역어로 등잔불 사용

- <홍덕선> 18c 영소설 번역 김훈 문체 활용 가능성

[과장법의 대조 효과]

- <최석무> U 12장 문체 유사함. 142행 과장된 묘사의 예 - 위대한 중세 배경 속 인물 행동은 대조적임. 술 따르고 버리는 스티븐의 평범한 이야기를 과장법으로 표현하여 의미의 상실감이 돋보임.

- <이태수> 문투와 실제의 대조

- <김종건> 조이스 작품도 언어발달 단계로 본다? (+언어의 역사성) *FW* 언어가 훗날 일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 14c which는 선행사와 분리 사용, *All's Well that Ends Well* 에서 ‘;’ 사용 이후, +that 가능. 159행 like to= similar to, quick은 ‘빠르다’ 아니고 quickening처럼 ‘임신하다’ 뜻임. 149행 no wight=no person/man 고어 많이 사용한 점에서 과거-현재의 연계성 ->페러디 문체 성향
- <홍덕선, 김종건>번역 실제 318쪽 186행 Woman's woe with wonder pondering 시각적 반복→한국어 /ㄱ/ 반복으로 살리려 했음.

[150행 in the which 중세 영어?]

- <이태수> 이탈리아어의 용법 유추 가능.
- <김길중> Shakespeare 예
- <홍덕선> 토마스 아퀴나스 미학론에 that ~ which 구조 사용했음. (*Portrait* 예)
- <송인영> 194행 스티븐이 취한 모습.
- <김길중> 에마와 연관된 듯.
- <최희재> *Portrait*에 나오는 부분 확실히 Emma Clery
- <전은경, 김길중> 월급 받은 날이고 기분 나빴을 것.
- <송인영> 사실적 사건 진행과 더불어 *Odyssey* 와의 조응관계를 통한 새 의미 연결 가능. *U* 14장 탄생의 주제 블룸의 아들 스티븐의 탄생,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을 상징함. 195행 mead honey (꿀차)는 태아가 자라기 위한 정신적 양분으로 스티븐이 술을 마시는 것과도 연관됨.
- <김석> 14장의 회화와 (12장) 과장의 연결. 과장법은 현실적으로 비루한 처지인 아일랜드의 풍자와 식민지 과거에의 동경이라는 이중적인 의미 드러냄. 영어 발전 과정과 맞물려 때 과정 겪으면서 현대 언어로 발전되는 양상을 찬양함.
- <전은경> 320쪽 292행 woman-womb-word→스티븐은 인간 언어 역사 탄생을 함께 논의.
- <김길중> 아홉 달 속에서 전체 역사를 축약함. Gestation? 춘추필법처럼 전 역사를 연대 변동으로 파악. 태아의 성장과 Tacitus에서 속어에 이르는 변화를 언어//정신의 맥락에서 파악함.
- <전은경> 언어와 정신의 역사를 동궤에서 봄.

<김석> sardine→brainfood DHA 지방 많은 부분

- <김길중, 김상욱> 신의 술 nectar와 mead가 비슷한 기능. 양수 nourishing/ float? 양수(羊水)
- <김종건> 아일랜드 3대 생선-고등어, 연어, 정어리. Zola 자연주의 표현 예 식탁, 의상 묘사 대목.
- <김길중> 연어와 지혜처럼 정어리가 연상하는 것이 무엇?; 스티븐의 지성과 취기가 어울린 자화상이 술에 드러남. 192행 mien of a frere 생명태동과 생명과기를 함께, 변화를 동시에 보게 하는 parody 기법의 본질, Dante의 영향, 소설 제목 Dos Passos, USA, S. Bellow, Herzog
- <김종건> 주먹(punch) Costella (229행 번역 예)
- <김길중> U 14장 첫행을 한자 서체를 달리하여 옮긴 예 있음.
- <김종건> 술자리 참석 인원? 여기서 (Bannon, Lenchan 합쳐) 13 명임.

<김종건> 318쪽 201행 Ruth red him, love led on with will to wander, loth to leave. <김종건, 김길중, 전은경, 손승희> 여기서 Ruth는 연민, red는 read (=control) 뜻으로 ‘연민에 압도되어서’ 블룸이 스티븐 보호하려고 안 움직이고 있던 상황

-<이태수> 독일어판 주석 참조->191행 Alba Longa 아일랜드에서 스코틀랜드 사람을 부르던 말

<김종건> 318쪽 마지막 문단 210행 he had conscience to let her die에서 conscience의 뜻은? 사전적 의미로는 양심, 의식, 숙어로 뻔뻔스럽게도 ~하다인데. he는 산모의 남편 (Blamire, *The New Bloom's Day* 참조)

- <이태수> 독어판 번역→양심에 꺼림칙한 일을 했다,
- <최희재> 종교적 양심에는 부합되지만 나쁜 양심.
- <김상욱> 산모 죽게 둔다는 가톨릭 방침?
- <길혜령> 선택의 경우 아이 쪽, consciousness
- <송인영> 203행 it were hard the wife to die라는 Madden의 입장.

<김석> 술잔치에 모인 의학도 친구들 토론 내용-유사시에 산모와 아기 중 누구

를 살리느냐 두고 318아래-319위쪽 토론보다 화합 분위기 우선 의견 일치됨.
222행 스티븐은 신학적으로 irony 견지, 블룸은 침묵 일관. **226행** impossibilise
 는 ‘죽이다’ 뜻. 스티븐은 생명체보다 예술론의 영속성 중시한 경향 있음.

<최희재> 225-6행 의대생 음답패설의 구체적 내용은 자위행위? nightly
 impossibilise those God possible (하느님이 가능하게 한 영혼을 밤에 불가능하
 게 한다?)

-<김상욱> 자위행위

-<김철수> nightly는 ‘순식간에’ 뜻 담고 있다 봄.

-<김석> 낙태 불법 수술

-<김길중> 반생명적 불경스러운

-<김종건> 분만의 취지에서 벗어남

-<이태수, 김종건> But, gramercy (이러기도 하는데) what has become off (어찌
 할꼬)

-<최석무> 생명의 중요성을 아는 블룸이 아니라 (산아제한 없이 형제가 많은)
 스티븐이 왜 이런 말 할까?

-<김종건> contraception은 피임, 스티븐은 다산을 못마땅해 하는지.

-<김철수> 취중에 나온 농담조.

-<길혜령> 스티븐이 도서관에서 셰익스피어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펼친 후에,
 “Do you believe your own theory?”라는 질문에 대해 즉시 “No”라고 말한 것
 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 생각이라기보다는 논쟁을 위하여 반론을 내세운 것으로
 보임.

-<민태운> 추가의견 225행~: those Godpossibled souls that we nightly
 impossibilise, which is the sin... 이 부분이 자위를 가리키는 것이냐 피임을 가리
 키는 것이냐 논의가 있었고 오히려 자위 쪽의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광범위하게 둘다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문맥에서 보았을 때 자위
 보다는 피임을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부부가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연과 하늘의 섭리를 거역하는
 죄라는 거겠지요. 특히 “those Godpossibled souls”에서 “신이 가능케 한”이라는
 부분은 신이 자녀를 갖도록 의도했다는 암시도 들어 있어 자위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좀 찾아보았더니 *Ulysses-En-Gendered Perspectives* p.219 등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전은경> 227행 We are means to ... than we (인간은 수단일 뿐 자연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에서 'other ends'는 God's will?

-<김길중> telos 신의 지향점 = 진화 종착점, 언제나 다음 세대의 수단으로 봄.

-<김상욱> Darwinism의 biological drive

-<전은경> 생명인 이상 진화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김종건> 자위나 피임 등 즐기는 수단

-<전은경> 아일랜드에서 피임은 죄에 해당.

-<최희재> 자위도 죄임.

-<김종건> small creature는 정자

-<이태수> 4장에서 자위가 죄인지(against the holy Ghost) 스티븐이 물어본 적 있음. 생명 연장, 종족번식이 하늘의 뜻인데 우리는 생각 없이 낭비한다.

-<전은경> 20c초 아일랜드는 정부차원에서 피임 기구 사용 금했음. 유럽산 피임 기구 들여오는 사례 많았음.

-<송인영> 불륨이 수첩에 갖고 다니는 피임기구 이야기.

-<김종건, 김철수> 죄인 줄 알면서 밤마다 행하고 있다는 스티븐의 한탄.

-<이인기> 성경의 인물 Onan은 체외사정을 함으로써 죽임을 당함.

* 232-263행: **232행** 유니콘+피닉스 전설, 다른 사람들 Crothers 비웃음이 12장 불륨 놀림과 비슷한 장면 여자 남자 보거나? **240행** 가상 여자에 대한 걱정을 불륨이 했다. 전설 신화적 배경 뒤섞여 **245행** Catholic 교가 스티븐 을 내쫓는다. 스티븐 이 자랑스러워함 **242행** patron of abortions 비꼬는 내용. 바람에 의해 임신 시 Virgilius 권위 의존해서 **245행** 다른 남자와 같이 잤던 여자와 함께 목욕탕 있기만 해도 임신-임신 가설 **246행** A와 M M 언급 (cf: P 4장 미학이론 스티븐 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 재미있는 점 13c 아퀴나스→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접촉 그리스 로마 치우친 스티븐을 보완 반성하는 면. Orientalism 에 여기서는 음담패설 분위기-14장 마호멧 예수의 정절 유린. **248행** 비서구인 2인 언급

[248행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이 자란다’는 맥락]

- <이태수> 낭설임. *Aristotle's Masterpiece* 책의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님.
민간 속설에서 나온 영혼의 형성 이야기에서 영혼과 생명체는 동일하게 여김.
이와 달리 영혼을 육체와 대비된 원리로 파악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이 육체와 만나면 육체가 자란다고 여김.
- <김길중, 송인영> 낙태의 기점 문제, 8주를 기점으로 한 배아와 태아의 구분
- <전은경> 창조 개념을 중시하는 현대 가톨릭 신학이론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설(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서 이미 존재한 영혼이 들어간다)과 다른 입장임. 생명이 창조가 아니라 존재라는 아퀴나스의 생각은 아버지의 몸 안에 imminent 영혼이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관과 비슷한 점 있음.
- <이태수> Eve 이전의 조상으로 알려진 Lillith는 Adam의 아내자리를 쫓겨나서(생육과 번성에 반대쪽에 서 있는) 낙태 원리를 담당함.
- <김상욱> 241-2행 구문 cast him out of her bosom, of law of commons, of Lillith
- <김종건> out of ... or (spake) of
- <김길중, 이태수> 유대인은 서구 아닌 이슬람 세계에서는 편히 삶. Averroes & M. M은 중동 태생으로 스페인에 살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희랍어를 번역해서 보내고 서구 그리스-로마 가톨릭을 계승하는 식으로, 서구 문명에 영향을 끼쳤을 것임
- <전은경, 김길중> Lilith와 Vampire는 서구 중심에서 따질 때 변경 지역에서 바라본 Joyce의 문명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는지.
- <홍덕선> 245행 or an she 의 쓰임새
 - <김종건> 한 여자
 - <김길중, 전은경> 뜻없이 쓰인 고어체 모방
 - <송인영> every의 뜻
 - <길혜령> a 아니라 an she인 점
 - <김상욱, 손승희, 정인경> an=if
 - <이태수> 파격구문(anacoluthon, -a)의 예

<김석> 248행 foldeth (=enfold) ever souls, 250행 beastly = unnaturally, 252-3행 witch에 의해서 - bachelors를 sir라고 부르며 traveler로서 젊은 knights들과 섞이지 않는 블룸의 위치.

-<최희재, 김상욱> 253행 아이를 낳을 때 잘못하면 죽는 점. 어머니 몸= her person 257-8행 교회는 아이와 죽인 산모를 위해서 모금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블룸 위기모면.

-<김종건> 블룸은 낙태에 불만을 가진 입장이며 산모를 살려야 한다는 편입.

-<최희재> a pregnant word는 결국 교회 비난하는 뜻으로 쓰인 말로 두 경우 다 돈 받는 교회 처사를 향해 교회 반대편인 블룸은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옴.

-<김종건> 교회로서는 어정쩡하게 돈 받아먹는 것.

<이태수> leo(사자)+pardy(표범)를 함축?

-<김종건> pardy는 ‘확실히’라는 뜻의 부사.

320쪽 260행 stealeth from the poor lendleth to the Lord 가난한 사람에게서 가져다가~ 성경 직역, pity upon 여기서는 산모와 죽은 아기 가리킴.

-<김종건> U 1장에서 Buck Mulligan의 표현 반복됨.

제55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 502호

일시: 2008. 3. 15.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김석

정리자: 손승희

범위: *Ulysses*, Chapter 14 (Eumaeus), Lines 264~407

참석자: 홍덕선, 김종건, 이태수, 김길중, 전은경, 남기현, 최석무, 길혜령, 최희재, 이종일, 송인영, 김상욱, 김경숙, 정인경, 강서정, 김석, 손승희

〈발제〉

불경스런 발언과 외설로 가득 찬 국립산과병원에서의 향연이 계속해 이어지는 264행에서 428행까지의 문맥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리고 아마도 가장 특기할 만한 순간은 블룸이 생후 11일째 사망한 자신의 아들 루디를 회상하는 부분(264-276행)이다. 특히 죽은 루디를 위해 몰리가 짠 양모 코르셋에 대한 언급(269행)은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서 비롯된 세 종교—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에 공통된 희생양의 제의적 역할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오딧세이』에서 황소들과 함께 태양신 헬리오스의 섬 트리나크리아에 살았다고 전해지는 양들의 신화적 존재를 환기시켜준다. 그리고 이에 뒤따라 루디에 대한 블룸의 기억이 스티븐에 대한 안타까움과 걱정으로 이어지는 문맥은 텍스트 내 두 등장인물간의 만남이 지니는 주제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15장 키르케의 표현을 빌자면 “Jewgreek is Greekjew. Extremes Meet.” XV, 2097-8)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 그 주제적 중요성에 비해 둘의 관계에 서사적 초점이 전혀 극적으로 모아지지 않으며 오히려 우회적으로 비켜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다소 성급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으나) 과연 둘의 만남을 그리스와 히브리라는 두 거대 문명의 조우, 내지는 충돌이라는 알레고리적 틀에서의 해석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정당성을 지닐 수 있을까? 차라리 두 등장인물이 모국 아일랜드는 물론 각자의 정서적 배경을 이루는 두 문화로부터 마저 소외되었다는 사실을, 즉 그 둘의 공통된 타자적 위상을 텍스트는 부각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두 등장인물의 역할이 지니는 이러한 양가적, 아프리카적 측면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이어지는 문단(277-312행)은 14장에서 “가장 언어적으로 뒤섞인 문단 중 하나”이다(J.S. Atherton, “The Oxen of the Sun”). 엘리자베스 연대기 스타일이라 명명되기는 하나 정작 엘리자베스 시대적 언어가 등장하는 것은 그 다음 문단(313행)에서부터인데 이 역시 뒤따르는 존 밀튼(334행 이하)과 토마스 브라운(352행), 존 버니언(429행 이하) 스타일에 비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극히 미소하고 미진하다(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Falstaff 흉내는 기껏해야 서너 행에 그치고 있음). 일찍이 비평가 해롤드 블룸은 『율리시스』와 『피네간의 경야』 같은 조이스의 후기작들을 셰익스피어와의 문학적 대결(Agon)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바 있는데(H. Bloom, “Joyce's Agon with Shakespeare”), 그렇다면 현 문맥에서 드러나는 셰익스

피어의 주변부적 위치는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또 이는 영어의 발달사 패러디라는 장의 전체적 틀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토론〉

264-267행: 블룸의 루디 회상 부분-스티븐 염려로 이어짐. 그런데, 스티븐과 블룸의 서사가 극적이지 않고 둘 사이의 관계는 우회적으로 비껴가는 느낌. 스티븐과 블룸의 만남을 알레고리로 볼 수 있는지?

274이하: 말은 자궁 안에서 육체가 되고... 말은 logos 15장에서 tell me the word mother 말할 때의 불안한 어조와 대조적임. **287행** 월급 받은 돈 두고 거짓말. 스티븐 설교에서 성모, 삼위일체 등 언급, 성모는 자식 예수의 어머니, 이어서 Punch Costello 외설적 노래 (**317행**) 태아가 석 달 지점에 도달-간호사가 조용히 해달라 요구함 (폴스타프 흉내)

[셰익스피어 언급 정도와 의미 비중]

- <남기헌> 산문의 역사이므로 운문인 셰익스피어는 언급 의미 덜할 듯. 테이프에서도 구별해서 읽은 듯. 시와 달리 산문의 전통 계승임을 견지하는 태도라 봄.
- <김길중> 도서관 장면으로 셰익스피어 패러디는 충분하다는 말.
- <홍덕선, 남기헌> 엘리자베스 시대 산문이라는데 염두에 둔 특정 작가의 글이라도? 미약한 비중, Falstaff 흉내 정도 (발제문 2문단 참조)

[제물로 양을 바친 의식의 예와 의미]

- <김석> 동아시아에도 양을 제물로 바친 의식이 있는지?
- <손승희> 제나라 임금의 不忍之心 끌려가는 소를 보고 소의 피 대신 양의 피를 제사에 사용. 『맹자』 「곡축」장 不忍人之心 참조.
- <남기헌> 제물로 이용된 것은 염소 비슷한 산양
- <송인영> 성경에서 양과 염소(위선, 이중인격) 구별
- <전은경> 염소는 음란함의 상징

- <홍덕선> 18세기 관상학에서 염소형 얼굴은 부정적임.
- <남기헌> Pan ram(수), ewe(암), 백양궁
- <이태수, 김길중> 희생을 의미하는 한자 '희'(犧)에 양(羊) 글자 들어가 있음.

[292-3행]

- <강서정> 말은 로고스외에도 인간의 언어문화와도 연결됨, 시대별로 나오는 의미
- <전은경> 인간 아이처럼 언어도 자체의 삶이 있다
- <민태운> 추가의견 292행~: In woman's womb word is made flesh.... 이 장은 아이가 탄생하는 것(태아가 자라는 것)과 영문학 산문이 발전하는 것을 연결시킨 장인데요. 이 부분은 종교적 의미 등 여러 가지 가리키겠습니다만, 아이의 탄생과 언어(산문)의 발전이 혼합되어 언어(산문)가 육체(아이)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아이의 탄생을 스티븐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예술가로 탄생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word that shall not pass away"는 창조주 혹은 영원한 상상력의 사제가 창조한 영원한 예술작품을 말하지 않을까요?

[306행]

- <전은경> 불어 문장 성모 언급은 무엇과 대비? 문맥상 보통 여인의 잉태와 어떤 관계?
- <김길중> 반복을 통해 불경함 드러냄. 멀리건 말투 연상 불신과 야유 포함
- <최석무> 가톨릭에서 성관계의 목적은 쾌락 아니라 생육이어야 함.
- <김길중> 당신네들 말대로라면 이러라는 뜻이요 하고 세목화
- <송인영> 아가서에서 육감적인 성적 즐거움 드러냄, 빅토리아 사회에서 성적 쾌락이 부인되고 도그마화 된 결과?
- <최석무> 신약에서는 성적인 억압 드러냄. 가톨릭 전통에서 성체 모시기 전날 밤 성관계 안하는 관습도.

<남기헌> 308행 subsubstantiality

- <이태수> 말과 육체가 동일, 이 둘이 나란히 놓일 수 있으나 다른 하나의 아래

에 놓일 수는 없다는 관계 설정.

- <김종건>substantiality는 공통, trans-는 성체성혈이 실제 예수의 몸과 피를 영함, con-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체'=substance)
- <김길중> 초기 기독교 논쟁에서 이단시된 아리우스와 스티븐 이단적인 태도가 통합.
- <이태수> 여기서는 육체와 말의 관계에 국한해 봄직. trans-는 예수의 육화(incarnation)와 밀접한 관련 있음. 요한복음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 logos가 예수로 육화되는 부분, 말의 육화가 바로 잉태되는 과정인데, 육이 다시 말로 되는 것이 transubstantiality. 성모는 육화의 매개임.

[320쪽 303행 ‘성처녀여 너는 너의 아들의 딸이다’]

- <김종건> sub에서 인과의 논리관계 놓고 말장난?
- <홍덕선> 상하 관계가 있다는 함의가 있음.
- <최석무> 성부 성자 동일체고 서열 같다면 예수가 하느님인데 성모도 딸이다?
- <남기현> 딸이고 어머니이고 아내가 되는 셈.
- <김상욱> 마리아는 인간인데 원죄설에서 자유로운가?
- <전은경>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 <남기현> 세속적인 해석
- <길혜령> subsubstantiality는 조이스의 조어.
- <김상욱> 종교상 해석의 차이도 있는지,
- <이태수> 실체 (=본체, 물건)는 하나 (일신론), 인간은 person=substance 그러나 하느님은 3 persona (mask)=substance임. 단 그리스 정교와 가톨릭과는 차이 있음.
- <김상욱> 불교의 의미 몸을 나뉜다 부처가 관세음보살이기도.
- <남기현> 그리스정교는 사진은 인정하나 동상 등을 인정 안 함.
- <이태수> 성찬의 신비를 입증하느라 나온 설
- <김종건> trans-와 con-는 정통교리이나 sub- 이단을 이야기. 정설 아닌 것 수음 등. 카이버드 비평서(*Irish Ulysses*)에 따르면 가톨릭과 신교 (루터교<남기현>)의 명칭 차이 <이태수, 홍덕선> 성체의 신비 신교와 구교의 입장 차이

- <김종건> 320쪽 303행 이탈리아어 creature of creature 당신 아들의 따님 곧 예수의 예수의 딸 아니라 하느님의 딸인 셈.
- <이태수> 321쪽 306행 임신시키고 만 성령으로 하느님과 부부 관계에 놓인 마리아를 외설적으로

<김석> 296행 문의

- <김종건> 번역→존경하올 어머니는 마리아와 이브의 연결... 그녀는 그를 알고 있었소
- <남기현> 예수가 하느님인 걸 알았고, 마리아는 아들의 딸인 셈.
- <이태수> 303행 know를 sex로 쓰는 성경의 예도 있음. 304행 in the house는 교회
- <정인경> know는 성경에서 동침하다의 뜻

<최희재> 그는 요셉?

- <이태수>한국말에서도 통합.
- <김종건> Peter는 이단자 이름이기도 함. she knew him/ not과 구별하는 것이 이단의 입장.
- <이태수> 다른 경로라 함은 다른 남자라도 관계했을 수 있다는 것 포함. 베드로가 예수 부인한 적 있는데, 그와 동렬에 서는 경우이고, 요셉은 혼외정사의 수처에 직면한 마리아를 구한 사람. 하느님이 애 아빠가 되는 식.
- <김종건> 로마 교황청까지 포함
- <김길중> Jack built는 rhyme, 베드로가 로마에 세우고 내려오는데, house of fiction인가.
- <이태수> 독일 주석→시사하는 바는 베드로에서 시작된 교황(주교)의 승계, Jakob(→Jack)으로 악마의 영어 표현 따라서 악마가 세운 집이 됨. 반석 등 교황청의 근거가 성경에 있음. 야곱은 하느님일 수도. 그러면 하느님이 세운 집에 사는~

- <손승희> 야곱은 에서를 속인 간사한 인간으로 그려졌다고도 봄.
- <김길중> 악마의 형용일 가능성. 베드로 사제직 계승 '베드로'와 '반석' 사이에 pun 작용, 자기 위에 선 집
- <김종건> Jack(악마) 세운 집에 사는 베드로도 이단. '하느님을 아는 마리아가

예수 잉태, 받아들였다'와 '하느님을 모르는 마리아가 존재 인정 안했다'의 두 설이 대립 관계임. 알았든지 몰랐든지 다음 농담조로 예수는 비둘기의 자식이다.

<홍덕선> 273행 의미

- <김종건> 281행 Now drink we, vicar of Christ인 vicar of Bray 당대 교황 비오 10세 Pius 10세가 여기 들었으니 이 사람을 위해 건배 for a pledge. vicar of Bray는 아일랜드 노래에 나오는 인물 빗대어 예수 조롱함. 280행 <김길중> 당대 교회 수장을 폄하하는 뜻.
- <손승희>-<주: 비오 10세- 이탈리아 태생 1835~1914, 1903년 교황으로 선출됨)
- <김종건> 예수의 잉태를 둔 논란
- <이태수> 독일판 주석→성령에 의한 잉태는 trans-, 보통 수태의 관점에서 con-으로 연결 가능. 아버지와 아들이 동위에 존재... 상하는 아니다
- <김길중> 독법의 지침인 것.
- <김종건> scurvy word는 substantiativity 지적하는 듯함. a pregnancy without joy는 성령에 의한 잉태를 의미?
- <김길중, 이태수> <김길중> w, /w/
- <김종건> 우리말 두운 살려 번역한 예 의항-의당 [의] 반복.
- <김길중> 목소리 달리 함 Gaelic어투로 구별 지음. 불룸 집안 이야기와 Rudy 읽은 슬픔을 게일어로 따로 녹음한 이유?

<김종건> 3파운드 12실링 월급 중 2파운드 5실링 술집 계산. Mooney 주점에서 차액 이미 술값으로 지불... 나중에 사창가에서 마저 사용.

-<홍덕선> 당시 물가에 비추어 1실링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김종건> 277행 on live 엘리자베스 식 영어? 독어 식 307행 갑자기 결단 이거다 식 Entweder... oder 키에르케고르 식? 예수의 잉태를 두고 다혈적으로 집약시킴 첫째 라틴어, 이탈리아어, 불어, 독어로 집약해서 순서대로 언어의 탄생. 272행 heir 불룸과 스티븐 첫눈에 상속자임을 알아봄.

- <김길중> live를 on 위에 걸친 듯함. 뜻은 살아있는 채
- <손승희> on live가 혹시 나중에 alive로 변화된 것은 아닌지.

- <강서정> 스티븐이 정신적인 탄생과 동시에 블룸의 자식으로 나오는 셈이며, 출산과 언어정신의 연결 확인.
- <김종건, 김길중> 스티븐 태어나고, 언어가 태어남. 시기는 다름. 스티븐과 블룸이 본 것이 진짜 탄생 뒤에 천둥칠 때 들이 쳐다봄이 spiritual birth이고, 언어는 마지막에서 사투리 섞인 진통 겪고 태어남.
- <김길중> 발달 또는 변화를 태어남으로 설명하는 것이 인상적임.

<김종건> 317행 when 배열 위치

- <남기현> 소문자로 시작.
- <김종건> Staboo는 Stephen일 것임.
- <김길중> 317행에서 이어서 when을 연결한 방식?
- <전은경, 남기현, 김종건> 348쪽 1532행 staboo 다시 나옴. 술꾼 이름. 등장인물 11명 (Milly 애인과 Mulligan 등장 이전), 11은 조이스에게서 탄생의 의미

<김석> 320쪽 278행 pretender는 누구지칭?

- <김종건> Bloom 가리킴. 12장 prudent 244-5쪽 대표적인.
- <김길중> pretender 영국의 전형적인 문화 특색
- <최희재> 저녁식사 장면에서 Freemason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함.
- <김길중> 신중함의 연결, 부자지간 왕위 계승 연상 가능.
- <이태수> 320행 Andrew 부분 연결
- <김길중> 따옴표 생략하고 이음.

*334행~ : 덕슨은 스티븐이 성직자 되지 않은 이유 궁금해 하고 366행 involuntary poverty를 택했다로 이해함. 아내 바뀌치기의 pun, Exile의 주제이기도 함. 379행 까지 스티븐 어머니 기억 일으켜 pathos 자아냄. 379-80행 “Chamber Music” 11번 시 “a little ashes,” 14, 20, 23, 30, 34번 시 “kiss” 예, 뒤에 가서 파토스가 뒤집힘. Gifford 주석-니고데모 등 성경외전 이야기 섞여 나옴. 스티븐은 말장난으로 끝맺고 있음. 389행 언급된 동방인 예수라는 호칭 흔히 사용되는지.

- <김종건> 소아시아의 지역적 위치 언급

-<김석> 인도 등 동양 언급 모세와 아베로에스(247행, 2월 독해기록 참조). 짜라 투스트라가 지금의 이란에 해당되는 지역(페르샤)에 플라톤의 사상적 영향 전파, 여기에서 서양에 영향을 준 동양 문화의 예. 마다가스카르나 인도 등 언급에서 조이스의 동양에 대한 관심. Ellmann 전기~ 불교의 교리문답 책에도 관심을 보였던 조이스, 트리에스트라는 항구의 문화 교류지역의 특성 반영. "William Blake"에서는 동양의 비전과 블레이크의 비전과 차별화하려는 노력. 그러나 여기에서는 섞여나온 인상 받음. Costello는 자장가/동요 운을 풍자한 시구 읽고 409행 천둥 소리로 마침.

<전은경> 셰익스피어 구절 모방한 부분

-<김석> 327행 Falstaff 대사풍

<이태수> 336행 obedience 태아의 의지 없이 어머니에게 의존. obedience~all his days까지는 교리문답에 나온 구절 원용

-<이태수> tomb 육체 의미

-<최희재> 여기서 스티븐이 언급한 맥락은... 가난은 내가 싫어서

-<이태수> 안 지킬 이유로 가난 등...

-<남기현, 이태수> 죽었을 때 깨끗할지 모르지만 살아서는 내내 가난하게?

-<김길중> 말투 사용을 즐기면서 womb-tomb의 rhyme을 이용함.

-<전은경> 두 단어 바꿔 사용해도 됨. 저도 한 표 <손승희>

-<이태수> voluntary poverty가 수도원 생활 명상을 뜻함.

-<손승희> 신부가 되기 위해서 청빈 서원

-<최석무> 실제 청빈 생활?

-<이태수> 탁발 수도사가 생긴 유래

-<최석무> 권한과 존경 누릴 수 있는 자리인데 P와 연결해 보면 실제와의 괴리 의미

-<김길중> 제도와 실제 성인과 재산

-<홍덕선> 조이스 당대 가장 확실한 직업이 사제직임.

-<송인영> 스티븐의 대답 의미

-<길혜령> 모태 신앙과 아일랜드 현실과도 연관

-<송인영> 사제가 아니라 예술가 voluntary poverty <이태수> 동의

-<강서정>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는 서원 세 가지를 비틀어 말함. obedience는 어릴 때나

-<김경숙, 김길중> chastity 왜 안 지켰냐는 물음에의 대답으로

<전은경> 성우의 목소리 변화의 의미 378행에서도 바뀜

-<김길중> 너무 웃겨서 혹 은근한 계제에 바뀐 것 아닐까? 물리피카티브?

-<손승희> 마니피카트→주: magnificat[마니피카트] : 누가복음 1:46-55 (Magnificat ani ma mea Dominum-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에 바탕을 둔 성모의 찬가.

-<남기헌> 기포드 해설 밀튼, 후커, 브라운, 테일러 산문체 4 가지 나눔

-<이태수> 352행 희랍어, 라틴어, 불어 등 섞어 씀.

-<김길중> connubial communion 우습게 만드느라 말 동원, 분위기 맞추어 과장 쏟아부어 늘이면서 솜사탕처럼 만들었으니 목소리도 변해야 될 듯.

-<최희재> French letter 콘돔 짜라투스트라 free sex 이런 맥락

-<김길중> 배운 사람들이

-<전은경> 364행 the university of Oxtail

-<이태수>rig~ professor

-<전은경> 독일과 달리 영국은 적은 숫자에 걸맞는 권위 있는 직책, 대개는 lecturers, readers이며 이들과 구별되는 것이 professors임.

<남기헌> 초야권

-<전은경> 먼저 영주하고 자고 결혼 밤 맞이함.

-<남기헌> 처용이 연상됨.

-<김길중> in the ... of diphane

-<전은경> 360행 전후 임신 4개월

-<남기헌> Gifford 주석 따르면 분화 정도

-<이태수> 347행 라틴어 부분 주석에 임신 4개월이라 되었음. 성별 확인 가능한 시점.

[니이체와 조이스의 연관성]

-<전은경> 피네간스 웨이크에는...

- <남기헌> “A Painful Case”에 우정과 사랑 언급 부분이 니이체 책 중 있음.
- <송인영> Gay Science
- <전은경> 니이체와 관련, Duffy의 인물형상화
- <최희재, 남기헌> 부정적인 묘사
- <송인영> 생명력 박탈된 인간형

- <홍덕선> 에클즈 거리 이름 받음.
- <최희재> second best
- <홍덕선> 작가 원용 섞어서 파일 잘 이용했을 듯.
- <최희재> 성경 익숙함
- <이태수> 라틴어 고전 등 암송 교육
- <김길중> 가사 노래
- <남기헌> 속담, 오페라, 대중가요 메모하는 습관 다음 작품에서 나온 듯.

- <송인영> 323쪽 노래의 음담패설 정도 심하다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럴까?
- <남기헌> built 대신 erect, bivouac 야 Jack과 John
- <최희재> sack 정소 malt 정액 등 어휘 사용
- <최석무> apple pie order
- <남기헌> 가지런히 정렬

- <길혜령> 382행 Which는 Orient를 받아서 대문자?
- <남기헌> 니고데모 외전에 나옴. 예수가 지옥에 가서...
- <이태수> orient or I? revant 뜬다의 뜻 아일랜드 선조가 밀레지아인
- <길혜령> 밀레지아인이 원래 유대인이었다고 켈트족의 대선조
- <전은경, 김길중> 아일랜드 신화의 내용?
- <전은경> 켈트 족의 이동 유럽 전역 걸쳐서 스페인 거쳐 아일랜드에 정착.
- <이태수> 유대인은 셈족인데...
- <김길중> 유대인이 예수 처형 주장한 배반자 원래 신의 선민이었으니 이쪽 연결을 원할 듯.
- <홍덕선> 셈족으로 알려진 밀레지언
- <길혜령> 율리시스가 이스라엘과 아일랜드의 에픽이라 했다 함. *Irish Ulysses*

- <김길중> 너무 세계 문학으로 보기보다 한 민족 아일랜드의 서사시로 본 책 있음.
- <이태수> 그리스 지역 밀레투스
- <남기현> 로마 영어 유대 아일랜드 다 연결 시도.

제56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 502호

일시: 2008. 4. 19.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김석

정리자: 손승희

범위: *Ulysses*, Chapter 14 (Eumaeus), Lines 408~580

참석자: 이종일, 전은경, 김종건, 이인기, 남기현, 김철수, 홍덕선, 최석무, 박진훈, 송인영, 김상욱, 강서정, 성정혜, 김석, 손승희

<발제>

***408행 앞부분~473행:** 스티븐이 신성모독적인 이야기("his hellprate and paganry" 411행)를 끝냈을 때, 그리고 코스텔로가 옛 동요를 풍자한 시문 한편을 읊으려는 찰나 병원 밖에서 반복해 천둥 소리가 들려오고(409행, 426-7행), 조이스 자신만큼이나 천둥을 두려워하는 스티븐은 애써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고 억누르려 한다. 하지만 곁에 있던 블룸은 스티븐의 두려움을 감지하고, 천둥이 단순한 자연현상일 뿐이라며 스티븐의 기운을 북돋아준다. 여기서 "A black crack of noise in the street"(408행)라는 표현은 스티븐이 작품 앞부분에서 반복했던 발언들, 즉 "That is God [...] A shout in the street"(II, 383-386)와 "God: noise in the street"(IX, 85-6)와 같은 신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환기시켜주고 있고, 곧이어 언

급되는 스칸디나비아 천둥의 신 “Thor” 역시 이러한 신 관련 연결성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블룸즈데이인 1904년 6월 16일이 Thor라는 어원에서 비롯된 목요일(Thursday)이라는 점에서(474행 “So Thursday sixteenth June...”) 신이란 존재가 관념적인 영원성에 결박된 존재가 아니라, 실존적인 차원에서의 ‘지금, 여기’와 직결된 그 무엇이라는 스티븐의 믿음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an old Nobodaddy”(419행)와 같은 문맥상 이어지는 표현은 스티븐이 상정하는 신이 더 이상 기독교적인 유일신만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해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스티븐의 탈/반기독교적인 관점은 서사의 지배적 배경을 이루는 신학적 담론의 흐름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무력해 보일 수밖에 없고, 특히나 스티븐을 포함한 술자리 배석자들의 불경스러운 쾌락주의를 준엄하게 꾸짖는 존 버니언 스타일의 설교적 문체(429행 이하, 특히 470-3행)에 의해 한없이 애처롭고 우스꽝스럽게 묘사된다. 하지만 현재라는 실존적 문제의 중요성은 그렇게 쉽게 간과될 수 없으며, 그리 오래지 않아 또 다른 맥락에서, 보다 정확히 더 넓은 의미에서 당시 아일랜드인들이 직면한 또 하나의 급박한 문제, 바로 구제역이라는 식민 정치경제적 이슈로 다시 한 번 그 모습을 드러낸다.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식민지적 상황의 역사성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조나단 스위프트의 필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조이스의 작품에서 대두되는 대부분의 극적 상황이나 핵심 주제가 그렇듯 여기서도 뒤따르는 벽 멀리간의 등장과 그가 내뱉는 음담패설적 발언에 파묻혀 문제의 본질적 심각성은 이내 희석, 평가절하되고 만다. 마치 말이란 수단에 의해 고통이 사라질 수 없다(“a spike named Bitterness [...] could not by words be done away,” 430-1행)는 사실을 역설적으로나마 확인해주려는 것처럼.

〈토론〉

*interesting points 408-454행 447행 P birdgirl (타락)

-〈이종일〉 거리의 여자 사창가 장면

-〈김석〉 성령 비둘기~성모의 예수잉태, 463행: 태아 움직이는 상황 5개월에 접

어둠 암시

*신의 개념 차이

- 광야의 소리인가 거리의 소음인가 (A shout in the street / noise in the street)
- <이종일> Deasy god의 개념, petite / grande narrative 절대자=noise in the street
- <남기헌> 천둥소리는 거리에서 나오지는 않을 듯. 황무지 시
- <전은경> 불륨은 hub of noise 불과함.
- <김철수> 신의 섭리에 이루어지는 역사와 동시에, shout in the street (세례 요한) 민중신학적 측면의 신의 개념임. 불경스러운 자를 죄주는 심판의 shout가 아니라 그저 소음 noise이 되고 말.
- <이종일> shout와 noise의 그저 흔들림 혼용
- <김철수> 거리 아니라 광야의 외침소리라는 데에 신에 대한 개념 차이가 있음 (절대자 아니라 인간 속에 섞여 사는 모습 강조) 구약은 하느님 목소리 거부하고 살았는가를 이야기함. 하느님 대신 외쳐주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자 요한까지 계속됨. 예수는 구원자라기보다 민중 지도자임 강조.
- <남기헌> 4·5회 나온 표현으로 기억됨. 신문 배달하는 소년들 소리도 shout, 거리의 노래 듣고 noise라 했음. shout / noise 구별된 예라 봄.
- <전은경> 조이스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 <송인영> 432·5행에서 신의 목소리-voice, 자연현상-noise로 구별됨. 불륨과 매든의 입장 대비
- <김석> 신의 섭리 대변. 이전에는 소문자로 표기되었던 phenomenon을 화자는 (변연 입장) 대문자로 Phenomenon 표기.
- <김상욱> 소문자에서 대문자로 변화된 의미
- <남기헌 등> 18세기 소설에 보이는 의인화 양상
- <김철수> 불륨은 중화 입장, 공존
- <전은경> 두 입장 구별

*tube의 의미-<남기헌> 문제 제기

- <김철수> 관 없이 이해 안 된다 식임

- <이종일> 이해 전제조건이 귀로 듣는 것임, 막지 앓고는 이해할 수밖에 없음.
- <송인영> blender, tube 인식적인 습관
- <김상욱> tube 번역-소리 통로
- <김종건> →이해의 관
- <이종일> sound and fury (소음과 혼란~시끌벅적한) 제목 분위기 연상함. fury의 두 가지 의미 (셰익스피어 사용 맥락)
- <남기현> William Faulkner는 *The Sound and the Fury*에서 idiot Benjy의 의식을 통해서 시간적 순서가 사라진 영역을 보여줌.
- <전은경> master의 번역은 학사나 ~군 정도?
- <김종건> 학생들 중
- <이종일, 김철수> 귀족자제, 도령
- <김종건> Blake on Joyce, U visionary ending 시인이 신을 만들고 갖는 느낌=자가 만든 인형에 반하면서 질투 느낌. nobodaddy(419행)-블레이크의 시 제목에도 사용됨.
- <강서정> 양수의 태동, 진동 갖게... tube도 감각적으로 표현. 로고스를 못 받아내서 소음, 신앙에서의 회의 등 소문(rumor) 말고 감각적으로 알아내야 하는 상황.
- <이종일> rumor는 일단 여기서 소음이란 뜻임.
- <김종건> U 14장과 황무지 시 비교: 구조상 앞부분/뒷부분에 기원문이 놓인 점. 황무지 시에 그대로 나오는 구절 많음. god ⇒ what the thunder said 긍정적인 내용-인류 사랑하시오 식. 조이스는 천둥을 어둡게 봄. 엘리엇의 의성어+뜻, 조이스는 길게 소리냄으로써 뜻으로 연결, 부정적인 인상을 남김. 사창가라는 단어를 여러 나라 말로 표기함.
- <김철수> Nobodaddy의 목소리라는 말씀.
- <남기현> 신의 목소리를 소리로 (빛이 더 빠름) 종교 교리 설명할 때 초자연적인 설명하는 경향 있는데 끌어내리려는 방향.
- <김철수> 블레이크 당대 아동-질투하는 하느님-하느님의 진정성 오해
- <김상욱> 무관심한 하느님에 대한 책망이 하느님 향함.
- <김종건> black crash god = dog, 조이스는 god = tyrant로 보는 작가. 안 쓰는 단어이며 고어인 alack (=pity)을 사용한 점도 신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반영

한 것으로 여겨짐.

- <이종일> 427-8행: 불륨의 과학주의적 사고방식-종교적인 절대자 부정 입장
- <김철수> 당대 팽배한 가톨릭에서 신은 두려운 존재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신 화성을 깨는 역할,
- <이종일> 438행? 어머니 임종시 양심의 가책
- <김종건> 12장 사형수 성기가 서는 현상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했던 불륨
- <전은경> 스티븐에게는 통하지 않는 불륨의 사고방식- 머리를 지배하는 다른 일
- <이종일> 불륨이나 마사 클리퍼드는 현세 삶 입장, 저세상은 뒷전.

*423행 의미-〈김종건〉 문제 제기

- <김철수> 결혼 등등도 없는 저세상
- <이종일> 455행 commons 휴게실 공유하는 장소
- <남기헌> 병원 안, Manse of Mothers
- <송인영> house = mansion
- <남기헌> grot 의미
- <이종일> 여성의 성기 부분
- <송인영> 여성이 사는 집
- <김종건> 수중의 새 (창녀) 유혹에 끌려 동굴에 들어감. 9장 끝 멀리간의 연극 제목 honeymoon in hand 동성애 주제와 닿는 seminal emission (or masturbation?) every man in his wife
- <전은경> 김종건 번역→two-in-the-bush?
- <김철수> 손 안 여자 말고 다른 여자가 있는 동네
- <이종일> pickaback과 cheek by jowl 남녀상열 동작, 노라에게 쓴 편지 보면 연상되는 해석
- <김상욱> 채워 연장 해석
- <남기헌> 창녀촌 가서의 상황, 콘돔 언급 456행 등
- <강서정> 천상으로 가는 길에서 땅을 알려주는... 다른 vibration -불륨은 order 를 부여하는 성향 물질세계 쪽 해석 형이상학적 해석 등등 반복하는 인상을 줌.

- <이종일> believe on 'on'이라 특별한 의미?
- <김철수> 성경식 고어 표현
- <김상욱>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라
- <송인영> two는 남녀 두 명 whore-freely flying bird 인데 하나를 낚아챘으니 in the bush
- <김상욱> 종교적인 금욕 pious eye-pleasing도 금욕만큼 중요하다... 직접 도움되는 것이 two in the bush 현세적.
- <송인영> 435행 천둥소리 안에서 만물 성장시키는 존재 아니면 소음을 들은 건가. 두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스티븐에게 여성과의 관계가 유일한 직접성. <추가 의견> 431-32: 천둥소리를 물리적인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초월적인 신의 섭리가 개입된 현상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스티븐의 딜레마가 잘 나타나 있다. 450: 1. 자연세계와 초월적인 섭리의 세계, 어느 것에도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스티븐에게 가장 분명하고 강렬하게 경험되는 것은 다름아닌 성적인 체험임을 암시. 그러나, 화자는 이러한 성적 체험이 번식과 생장이라는 자연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모를 초래한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는, 449-473까지 능욕과 질병, 살해 등의 뜻을 가진 단어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Bird in the Hand/ Two in the Bush 는 본래 속담의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맥락을 달리하여 외설스런 의미를 채색함. 본래의 교훈적인 속담을 패러디하는 기능. Bird는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남성을 선택하는 whore에 대한 비유.
- <남기현> 현실과 가능성 사이 손안의 새가 밖의 것보다 그런데
- <전은경> 손에 잡혀있지 않으나 더 좋은 것이 밖의 들, 가치는 별로라도 직접 소유한 것
- <김철수> Gifford 주석 내용 참고.
- <강서정> 말 그대로 이데올로기가 현상으로 구체화됨. 원래는 이해 안 되는 분야인데 현상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하면 풍자 이상의 의미일 것.
- <남기현> 도덕적 알레고리인 *Pilgrim's Progress*와 전혀 다른 의미 (<이종일> 원료만 사용 다른 결과)
- <김철수> 결국 천상을 향해 감, 사이에는 digression 많으나, 여기에서는 physical order에 민감해지면 오히려 얻을 수 있다.

- <이종일> goal 있는 변연에게는 progress이나 조이스에게는 wandering일 것

*464행 they와 them-〈남기헌〉 질의

- <이종일> allpoxes and the monsters 성병 두려워 안 함. 콘돔이 있어서. oxen이 든 pig든 Oxen 장이라서 활용한 듯.

- <김종건> 신앙에 대해 아무 가책 안 받는다. 신앙을 conceive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 세 가지

- <이종일> 태아 관련 사용된 단어. 배음굴이라는 즐거운 곳 두고 왜 허황된 곳을 가졌는가

- <남기헌> 종교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만나러 가는 이유는 종교 얘기는 개념이니까 버려도 된다는 뜻.

- <김철수> 이게 천국이라는 말임.

- <강서정> 신의 메시지는 불분명하지만 여자는 구체적이고 알게 되는 대상이 된다. 지금은 회미하게 보아도 그때는 알게 되리라... logos 아니라 그녀를 ‘아는’ 대체 세계로 간다.

- <김종건> 배개 네 가지 shield = condom
offspring에 heart (부담: <이종일>) 안 느낌, 468행 blind fancy 그러기 때문에 못 된 생각에 대해 하느님이 화났다

- <송인영> 등장인물의 별칭 창녀들과의 행위 상상에 빠짐.

- <김종건> 번역-모든 맹목적인 망상에 잠겨있느니... 참가자들 의인화... 오 가련한 무리들아 너희들은 모두 속고 있나니... 하느님의 분노이니라

- <이종일, 남기헌, 김철수> 그들은 화자의 mask 정도 역할

- <남기헌> Dixon 등위는 누구?

- <송인영> Franklin는 Lenehan, Kevil은 Cropt임.

- <김종건> 475행 이전 천둥 소리친 이후로 3 문단 마침 어려운 구절 (하느님 성관계 등은 스티븐 생각이라 어렵게 표현했다고 추측됨) 지나고 다음에 쉬운 내용이 이어짐.

* 474행~528행: 신의 심판으로 바람과 물과 불이 닥칠 것. Peyps 일기체 모방 조

이스는 오히려 Defoe의 the Journal of Plague 비슷한. 멀리건이 병원 오다가 502행 알렉 배넌 만남 (멀리 언급됨) 507행 블룸의 꿈 이야기 테이프에서도 Leop 잘라서 읽음. those in ken for a change (월경 menstruation) Purefoy 산고로 이야기 옮겨 짐. 정신적 아들 스티븐 든, 실제 아들 없고 딸이 구설수에 오른다고 볼 수도 있을 지? 블룸의 형편. 자연재해는 블룸 말대로 현상 아니라 종교적인 입장으로 마침.
- <전은경> 화자 이야기

*물리의 복장- <최석무> 물리가 이런 옷을 입는 이유 Turkey trunk 남자속옷인데 성전도 모습과 관련? for a change는 기분 전환?

- <남기현, 최석무> 색다른 분위기
- <김석> 아는 사람은 아는 이야기 전날 밤 꿈은 블룸 생각으로는 다음...
- <김중건> 붉은 슬리퍼는 월경 암시
- <이종일> 물리가 여자로서 남자 우위에 서는 성관계 전도가 나오는 장
- <김석> 보일런 맛이 분위기 준비
- <이종일, 송인영> 스티븐 꿈 속에 수박, 여인?
- <김중건> beef to the heel (=코끼리 다리<이종일>) 똥똥보여자로, 밀리가 편지에 쓴 표현임.
- <송인영> 성행위가 성장 아니라 욕정 충족의 남용, 그렇다면 황무지의 현상, 비 오는 것의 상징성. <추가 의견> 474-90: 6월 16일 10시경, 천둥이 몰고 온 소나기가 그 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대지, 늪지, 동식물을 소생시키는 단비 구설을 한다는 암시. 이때, 자연은 기독교적인 신이 임재하는 장소나, 계시의 방편이라기보다는 만물의 성장과 번성, 소멸의 순환을 주관하는 거대한 모종의 섭리 하에 작동한다는 느낌을 줌. 만물의 근간이 되는 이러한 섭리를 14장에서는 “bring forth,” “the god Bringforth” 등의 구절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하기에, 기계적이거나 물리적 현상물로 자연을 이해하는 인식방법은 이 대목 전후에서 지양되고 있다.
- <송인영> 가뭄 끝 단비~고갈된 자연의 생명력 살림 밀리의 두꺼운 다리도 성숙의 의미, 왕성한 생식력? 터키식 바지와 붉은 슬리퍼에도 성적인 의미가 있다 유대 아랍 사람들-동양인에 대한 성적, 이국적, 신비감 배꼽 루비 달고 배꼽춤 연상하는 식의 선정성 부각. 살로메 연상. <추가 의견> 509-10: 블룸이 빨간 슬

리퍼와 터키식 바지를 착용한 몰리의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것은 바로 앞뒤 맥락, 즉, 밖에는 생산과 성장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리고 있고, 안에서는 주연의 참석자들이 각자 인간의 생식 행위를 상상하는 데 몰두해 있으며, 뒤이어 푸어 포이 부인은 오랜 지연 끝에 드디어 출산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좋을 듯. 몰리의 복장은 오리엔트의 전형적인 이국적인 의상. 유럽인의 인식체계 안에서 오리엔트는 “신비스럽고, 이국적이며, 성적 환기력을 지닌” 곳으로 습관적으로 규정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빨간 슬리퍼, 터키식 바지”는 다분히 성적인 매혹을 의도에 둔 복장이 아닐까 함. 스티븐이 보석 가게 앞에서 붉은 루비를 배에 달고 배꼽춤을 추는 무희를 떠올리는 것과 비슷한 낚아채기를 풍기며, 헤롯 앞에서 춤을 추던 살로메의 복장을 연상시키기도 함. 어쨌거나, 블룸이 바로 이 시점에 성적으로 매혹적인 복장을 입은 몰리를 떠올린다는 것은 생식과 생명의 출산, 성장이라는 커다란 순환 틀 안에서 해석해야 할 듯.

-<최석무> 당시 남자 바지라고 생각했던 터키 트렁크인데...

-<남기헌> 스텐 호프 여성이 했던 남성 복장 [그림1 참조]

Michael H. Begnal, "Molly Bloom and Lady Hester Stanhpe," *Joyce and Popular Culture*, ed. R. B. Kershner (Gainesville: University of Florida Press, 1996), pp.64-73.



<그림 1>

- <전은경> 이국성+선정성 ⇒ “Araby,” “Sisters,” “A Little Cloud,” “A Mother” – Turkish delights (=사탕<송인영, 남기현, 김철수>)
- <남기현추가> 나니아연대기1편에 보면 Edmund가 the White Witch를 만나서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을 때 Turkish Delight를 원했음! 19세기에 Turkey에서 들여와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인기 있는 과자이었음. [그림2참조]



<그림 2>

- <송인영> 오렌지 나무 plantation (생산적)과 더블린의 땅(척박함) 비교
- <이인기> 아젠다스 네타임
- <김종건> 그러나 보통 사람이 하는 연상과 달리 change를 월경으로 본다
- <송인영> 가뭄 끝 폭우 물리의 한 달 만에 터지는 flood
- <이종일> 그런데 풍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 불벼락이 쏟아진다더라. 황무지와 같은 어조임. 마지막 부분 521행~yet those in ken(뭘 좀 아는 사람들은) ... 노부인이나 철없는 사람들이야기인 줄 아는데 맞추기도 하지.
- <김상욱> 말라카이 예언자 말이 맞더라
- <김철수> 구약 성경 마지막 저자 이름이 말라카이임.
- <송인영추가> 521~: 현재 가뭄 끝에 단비가 오므로써 만물이 재생과 생명의 기회를 다시 얻었지만, 더블린 사람들이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채, 습관대로 생명을 능멸하는 행위들을 지속한다면 태풍, 홍수, 화재의 재앙이 자연의 징벌로 내려질 것이라는 경고. 생명의 능멸은 14장에서 태양신의 황소를 살해하는 것으로 상징화되며, 구체적인 예는 태아 유산, 피임, 방탕한 행위 등을 들 수 있

음. 이러한 경고는 성경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러카이가 선대 예언자를 통한 신의 경고와 재생의 기회를 무시한 채 수백 년간 반복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 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그 예언과 경고의 무게를 강화시키고 있음.

-<이종일> () 넘기고 연결해서 읽어보면... 세 가지가 나타날 거다 그것들은 무엇?

-<김상욱, 김석> 바람, 물, 불.

<남기현> 설명은 안 되지만 518행~킹 제임스 성경(국교도) 아이가 죽으면 하는 의식이 the common prayer book -황무지의 첫장 제목 황무지 시와 비슷한 부분 많다. 엘리오트가 조이스 표절했다고 FW Elidiot 조어. 힐리(변절자) 조지 무어(가톨릭에서 개종함)등 the college lands 위원회 소속 사람들. 무관해 보이지 않음.

-<김상욱> 교황 선출방식이 대표자들 모여 하는 것으로 바뀜-관련 있을 듯.
Trinity college

-<김종건> 대학 토지 문제를 변호사들이 토의하는 내용 (U 7장)

-<김철수> 7장 800행 기포드 주석~학교부지 임대 대역문제

-<송인영 추가> 494: 거리 행인들, 무어씨, 피츠기번 판사, 힐리 등 14장의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인물들이 언급되는 이유는 재생의 단비가 정치적 입장, 사회적 지위, 성별, 윤리성 여부를 불문하고 온 세상 만물, 모든 거주민들에게 고르게 내린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 자연의 관대하면서 무차별적인 혜택을 암시함.

-<김종건> Dixon 등 7명, 나중에 술집 11명 (멀리건, 배넌 합 9명 +맥켄토시가 무명인사로 참여+한 명 더)

*475행 bargeman 논의-<이종일> 질문

-<김상욱> 성서의 노아?

-<김종건> 5장 뗏장(=pit 토탄) 신고 와서 야자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사람. 나중에 아일랜드 상징으로 뗏장 부각됨.

-<남기현> 뗏장 아래 석탄 매장

- <김종건> 토탄 위에는 단단하나 아래는 찌은 부분, 땀감으로 전체 사용.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 스티븐의 형이상학적인 묘사, 이후 쉬워짐.
- <송인영> 소생의 소나기는 정치적인 입장 견해 떠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비가 내린다~마지막 부분 황무지 분위기 살아 있음. 소생의 기회를 주는 자연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길을 겪게 될 인간~ 세 개의 재앙이 한꺼번에 닥칠 것임 징벌의 도구로)
- <김상욱> almanac
- <송인영> 장군감이 태어나려나보다. 정액 사출 생산 버림, Purefoy는 생산에 성공. 이름에도 암시. <추가 의견> 502: a skittish heifer~ beef to the heel로 밀리를 묘사한 것 또한 소나기로 인해 촉진되어진 소생과 성장이 이 부근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해석해야 할 듯. 앞부분에서 언급된 것처럼, 가뭄으로 황폐해졌던 들판이 소나기로 생명력을 되찾게 되었으니, 성장과 발육이 잘 된 소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밀리는 불모와 황폐로 빼만 남은 소가 아니라 생명력으로 충만해 있는 풍요와 다산의 소처럼, 살집이 보기 좋게 붙은 아가씨라는 것을 암시함. 마찬가지로 504행 퓨어포이 부인이 낳을 아기가 bullboy일 것이라는 예측도 병약한 아이가 아닌 원기가 충만한 장군감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암시.
- <남기현> 다산 억제에의 비난 그럼 조이스는 피임 찬성쪽?
- <송인영> 현실적 조건에 부응하는 안이지만 자연 현상 거슬리려는 뜻은 아닌 듯.
- <김상욱> 516행 킹 바이블에 죽은 아이들 세 사람 이름 있는지
- <김종건> 죽으면 관습적으로 이름을 성경에 적어준다 정도
- <강서정> 성경에 아이 잃고 통곡하는 어머니 소리 구약과 신약에 재앙으로 첫 아들 잡아가는 맥락에서 재앙의 의미
- <이종일> written down 아니라 written out?

* 529-581행: 레너헌이 디지의 구제역 기사 읽고 찾으려하는데 스티븐의 만류, 코스텔로가 대화에 끼자 화자가 설명 보탬. 소의 이야기 정경 문제 안고 있음. 블룸의 걱정하는 정도 564행 이어서 574행 스티븐이 걱정 말라고 이야기. 이번에는 역으로 스티븐이 위로하는 역할을 함. 해결방안은 허황된 것임. 조이스가 기고한 내

용(남기현-편지에 언급된 것이 근거였음)에서 영국이 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중단 했는데 재개되어야 한다. (남기현-최근 JJQ에 출판 당시 익명인 그 글이 조이스의 기고가 아니라 주장)

- <김종건> Corley보다도 Lenehan이 뒤에서 사주하는 나쁜 사람. 우시장 경험 소 bull 나오자 스티븐의 장광설 등장. bull이 교황칙서 327쪽 길게 나옴.
- <전은경> 교황 이름 니콜라스 (영국명) 아드리안 4세
- <김종건> U 소가 득실거린다. Telemachus, Oxford, cow oxen cattle, 초식동물 아일랜드의 주산물 all cattle out of sheds
- <남기현> John Bull (영국상징), 아일랜드는 영국의 목장.
- <전은경> 노파는 암소와 연관된 이미지임.

*575행 he/him

- <이종일> 무엇에 대해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질문, the emperor's chief taitlicker 는 Deasy 2장 433행 7장 540행
- <손승희> 스티븐에게 편지 전달 고맙다고 사례?
- <송인영> 황제에게 가족병 전문가를 아일랜드로 파견한 것을 감사?
- <전은경> 326쪽 레너헌, 코스텔로 묘사 부분이 Defoe 패러디라면 어떤 점에서?
- <김종건> 추상적이지 않고 인물 묘사가 사실적인 점.
- <손승희> 뽀진성을 가장한 자세한 부분의 묘사
- <송인영> 544행 자유간접화법(기록자 추가) 활용한 점이 데포우 문체와 유사한 듯.
- <남기현> 7장의 emperor's horses 질병 디지도 언급했음. 여기서 dispatch한 것이 디지의 편지가 아닐 수도.
- <송인영> 허풍장이의 연속선상 괜히 주목 끌려고?
- <남기현> 마일즈 크로퍼드에게 들은 이야기를 주위섬김, 영국 사람들이 황제에게 아부하는 차원에서 감사하는 소식이 급파되었다.
- <김상욱> 긴급보도 내용, 긴급타전의 뜻 dispatch
(→ 무엇에 대해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확정되지 않은 채 공동연구과제로 남김)